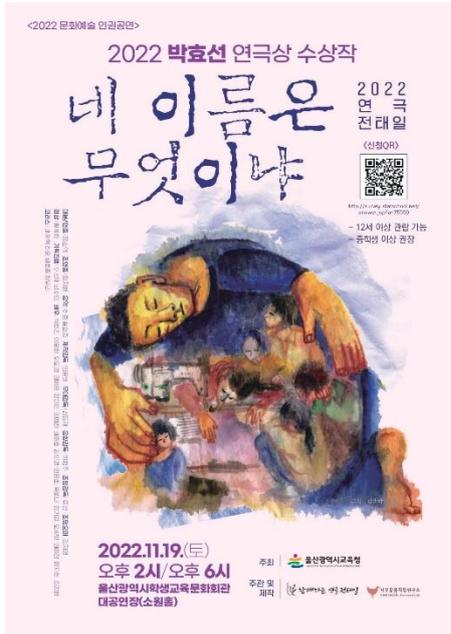


# < 연극 전태일 '네 이름은 무엇이나'를 감상하고 >

언양고등학교 김아연 학생



지난 11월 19일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2022 연극 전태일 '네 이름은 무엇이나'가 무대에 올랐다.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적은 지방에서는 이러한 연극 공연을 즐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이번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감사했다.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는 한국사 수업에서 배우고, TV 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다른 내용을 인상깊게 보았던 기억이 있다. 덕분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내가 배운 내용들과 연극에서 표현된 내용들을 비교하며 볼 수 있었다. 연극은 서막과 에필로그를 포함하여 총 12챕터로 구성되어있었고, 서사음악극의 형태로 이야기와 함께 몰입도를 높여주는 20곡의 노래들과 동작, 영상, 소품 등 다양한 장치들이 사용되었다. 가장 인상깊었던 장면은 역시, 전태일의 분신이 아닐까 싶다.

그의 삶의 결말을 알고 연극을 보니, 보는 내내 가슴을 졸였다. 연극에서는 10명의 전태일이 계속해서 전환되며 등장하였다. 마치 한 명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담긴 수많은 고뇌와 갈등을 나눠가진 다른 자아들이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게 모두가 다른 사람 같으면서도 동시에 분명하게 하나의 목표를 관통하는 전태일이라는 존재임이 보였다. 마지막 그의 분신 장면에서 이 10명의 전태일이 함께 분신한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궁금했는데, 나의 감상은 '아름다움'이었다. 그들이 표현하는 몸짓이 아름다웠고, 그 속의 공지가 아름다웠다. 분신의 불길 속 함께 일렁이는 운동의 역사 또한 나를 울컥하게 했다. 마침내 그와 고통받던 소녀들의 영혼들이 자유를 찾는 순간 또한 굉장히 인상깊었다. 그 순간이 그들의 희생의 의미를 말해주는 것 같았다. 어쩌면 나는 자극적인 장면을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부채감이 되었다. 연극은 오히려 관객들로 하여금 그 속의 송고하고 아름다운 의미에 집중하게끔 만들었고 나는 반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으로 이 연극을 추천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전태일 열사의 외침 덕분에 현재와 같이 노동 현상이 개선될 수 있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해야 할 이야기들이 많다. 최근 계속해서 불매를 이어오고 있는 'SPC그룹' 사건만 해도 그렇다.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다치고 죽어나가며 도저히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잘 포장된 겉모습 속에 잔인하게 숨겨진 이야기들이 아직 많다. 포장에 속아 안일해지는 그 순간에도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조금 더 나아졌다고 절대 안주해선 안 된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끊임없이 외치고 그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 적어도 그 참상을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 또한 나도 모르게 안일해져가던 내 자신을 연극을 보며 발견할 수 있었다. 먼 이야기가 아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다. 심지어는 내가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동자라고 하는 계급에 예속되어 자신을 자꾸만 낮추려고 할 필요 없다. 노동은 인간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결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무시받아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것이다.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연극을 관람하고 느낀 점이 참 많다. 역사는 현재를 살게 한다. 과거 전태일 열사와 노동자들이 겪었던 일을 기억하고 현재에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연극을 통해 성찰하고 배움을 얻어간다.

